

固有語의 漢字語化 過程

成 煥 甲
(中央大. 教授, 國語學)

1. 緒

文物的 交流가 늘어난 현대에는 借用語의 混入이 全無한 言語란 상상할 수도 없게 되었다. 그런데, 이 차용어가 지니는 肯定的 價値만을 지나치게 내세우는 주장과, 반대로 국어 발전에 미치는 沮害要因만을 강조하는 차용어 배척론이 극단으로 대립함을 자주 보게 된다. 한국어에서는 특히 漢字語가 固有語보다 엄청나게 많은 언어 현실로 인하여 漢字語의 功·過 兩論이 오랜 갈등을 계속하고 있는데, 두 주장이 모두 지나친 微視的 分析에 의지하고 있으며, 자기 論旨에 背馳되는 事例에 대하여는 糊塗하거나 無視하는 자세를 취함으로써 사실의 올바른 이해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固有語와 漢字語間의 葛藤과 調和에 대한 관찰의 視角을 綜合的 巨視的 안목으로 넓힐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本稿는 이와 같은 의도하에, 조선조 초·중기에 固有語로 實用된 예가 혼한 말이 후기에 漢字語로 代替된 語例를 찾아 그 대체의 과정을 정리하고, 漢字語가 국어에서 지니는 功過를 살핌으로써 ‘國語 속의 漢字語’의 위치를 바르게 파악하고자 시도된 것이다.

2. 漢字語化 過程

여기서 말하는 ‘漢字語化’란 歷史的으로 實用되던 固有語가 萎縮·消滅되고 同義의 漢字語가 등장하여 그 자리에 대채·定着된 경우를 가리킨다. 어떤 통계 보고¹⁾에 의하면 「국어대사전」(민중서관, 1961년판)의 표제어는 “고유어 25.9%, 西歐外來語 7.08%인데 비하여 漢字語가 67.02%를 차지한다”고 한다. 국어의 어휘체계에서 이처럼 漢字語가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까닭으로는 흔히 ① 文化的 優劣문제²⁾ ② 국어 어휘의 配意的 特質³⁾ ③ 漢字語 自體가 지닌 形態의 條件⁴⁾ 등이 지적되곤 하지만, 이는 한국 문화의 전통과 역사에서 유래한 필연적 결과일 뿐, 결정적인 어느 하나의 이유를 찾을 수는 없을 것이다.

固有語가 漢字語와 同義衝突을 일으켜 死滅하고 漢字語로 대체된 450餘 어휘⁵⁾를 그 교체 과정에 따라 類別해 보기로 한다. 다만 그 語例는 各類型의 대표적인 몇만 보이기로 한다.

1) 形態上的 要因

고유어와 漢字語가 同義衝突⁶⁾을 일으킨 상황에서, 단어의 형태상 고유어가 소멸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결함을 지니고 있거나, 고유어에 비하여 漢字語가 형태상의 長點을 지녀서 고유어의 活用이 적어지고, 결과적으로

- 1) 李應百, ‘국어 사전 어휘의 유별 구성비로 본 漢字語의 重要도와 교육 문제’, 한국어문교육연구회 「語文研究」 25·26 합번호, 1980.
- 2) 우리 문화보다 上位水準인 漢文化가 傳來하면서 漢字語가 대량 流入되었다는 주장.
- 3) 한국어의 語形成(word-formation)은 배의성을 살린 경우가 많은데, 漢字語가 이러한 특성을 충족시키기에 적합하다는 論理.
- 4) 固有語는 대체로 多音節語가 많으나 漢字語는 1~2 음절의 短音節語가 많아 간편하다는 견해.
- 5) 拙稿, 固有語의 漢字語 代替에 대한 研究(中央大 大學院, 1983. 6.) pp. 92~144 消滅 固有語 資料 참조. 이 어휘들은 필자가 15~17 세기의 200여 문헌 자료에서 추려낸 것이다.
- 6) 하나의 의미를 지니는 語形이 둘 이상 共存할 때 言衆은 그것의 선택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런 모습을 흔히 ‘동의충돌’ 또는 ‘의미충돌’이라 한다. 고유어와 한자말이 같은 의미를 지니고 쓰이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한자말의 세력이 상대적으로 커 간 경우를 말한다. 이를 실제 語例에서 보면 다시 몇 가지의 交替過程⁷⁾을 정리해 볼 수 있다.

(1) 言語經濟 欲求

너름지술아비 → 農夫	더러본아래 → 陰部
마습저버보다 → 容恕하다	아니한스시 → 暫時
아비동성누의 → 姑母	아수아자비 → 叔父
어피져집동성 → 姨母	어피오라비 → 外三寸

등의 交替例에서 보듯이, 고유어에 대체되어 등장한 漢字語의 음절수가 원래의 고유어보다 의형적으로 줄어들어 發話나 記寫에 있어 경제적이라 할 수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이처럼 고유어가 한자말로 바뀌므로써 형태가 간략해지는 것은 語形成에 있어서 多音節語인 고유어와 短音節語인 한자말의 본질적인 차이로 인한 당연한 현상이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그 예는 매우 많다.⁸⁾

또한 이 예들은 語形의 簡略化가 변화의 원인인지 결과인지 밝힐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의도적으로 경제성 있는 단어를 쓰고자 하여 간략한 漢字語를 자주 사용하게 되어 고유어가 退化한 경우도 있겠으나, 다른 까닭으로⁹⁾ 漢字語化한 결과 固有語와 漢字語의 構造上의 차이로 인하여 음절수가 줄어든 경우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그 先後, 因果를 확연히 나누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2) 安定性的의 追求

가난홀히 → 凶年	가수머니 → 富者
구지주굽 → 橫死	글월마로니 → 卷
글홀마춤 → 篇	

등에서 보듯이 固有語의 형태가 活用性 있는 단어답지 못하고 2~3 단어

7) 이는 여기서 말하는 '漢字語化' 과정이란 말과 같은 뜻이 된다.

8) 필자가 정리한 450餘 어휘의 70% 이상이 이 원인과 관계 있는 代替라 생각될 정도이다.

9) '다른 까닭'이란 後述되는 여러 代替原因들 중 어느 하나, 또는 그들의 복합을 뜻한다.

가 연결된 語句로 되어 있거나, 또는

▽몬홀 바람 → 微風 음알리 → 知己
쉬나몬히 → 五十餘年 오논취 → 來世

등에 보이는 고유어처럼 단순히 漢字語에 대한 配意的 直譯語로 등장한 것이어서, 고유어에 형태상 안정성이 없고 따라서 생명력·실용성이 약화하여 곧 死滅의 길을 걷고, 漢字語로 代替됨으로써 안정성을 얻은 예가 상당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소멸된 고유어는 대체로 그 실용 頻度도 흔하지 않고 사용 문헌도 극히 제한되고 있음이 보통이다.

이 외에도

간 → 分數 금 → 理致 곳 → 藹
길 → 利子 너 → 煙氣 출 → 根源

등과 같이 前項 언어 생활에서의 경제성 希求와는 정반대 현상으로 보이는 漢字語化的 語例가 있는데, 이러한 語形擴大의 경향 또한 安定性的의 추구로 인한 변화라 생각된다. 곧 ‘간·금·길’ 등 1음절의 고유어는 그 語形에 안정성이 부족하고 同音語 충돌을 자주 일으키게 되므로, 그 결함을 배제하기 위하여 多音節化——語形的 擴大 변화¹⁰⁾——가 흔히 나타나는데, 여기서 지적된 單音節 固有語의 漢字語化도 그 하나로 볼 수 있는 것이다.

(3) 同音衝突의 回避

너름 → 農事[‘너름>여름’으로의 변천 후 ‘여름(夏)’과의 동음충돌]
놀다 → 演奏하다[놀다(遊)]
닳다 → 傳染하다[닳다(似)]
닷다 → 消滅하다[닷다(修)]
묻다 → 訪問하다[묻다(問)·묻다(埋)]
바람 → 壁[바람(風)]

등의 漢字語化는 同音語를 의식한 漢字語 借用이라 하겠다. 대부분의 同

10) 金亨奎, 國語史研究(—潮閣, 1962), pp. 85~96, 國語史概要(—潮閣, 1975) pp. 164~170 참조; 李敦柱, 國語의 語形擴大攷—通時的 觀點에서, 「藏菴 池憲英 先生華甲紀念論叢」(湖西文化社, 1971), p. 30 참조.

音異義語는 이론상의 존재일 뿐이고 실제로는 發話의 환경(situation)이나 文脈(context) 또는 品詞의 類別, 토의 添用이나 語尾活用 등에 의하여 그 충돌이 解消되는 것이기는 하지만,¹¹⁾ 그러나 동음어의 존재는 그 자체가 言衆에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일이다. 더구나 여기서 보이는 語例들은 고유어와 漢字語가 同義관계에 놓여 의미충돌¹²⁾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그 고유어에 同音語까지 존재하여 形態衝突을 겪게 된다면 그 생명의 유지에 더욱 불리할 것임은 自明한 일이다.¹³⁾ 이 경우 同義의 漢字語를 선택함으로써 동음충돌을 해소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고유어는 점차 退化하게 된 것이다.

2) 意味上の 要因

이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漢字語化는 사회·문화의 발전에 따른 概念의 細分, 意味領域의 縮小나 擴大 등을 受容한 어휘 변화로서, 그 語例에서 보면 다음의 극히 對照的인 두 과정이 드러난다.

(1) 意味領域의 分化¹⁴⁾

- ㄴ습알다—거느리다 : 裁量·處理·主管하다
- ᄇᄇ다—가쁘다 : 疲勞하다
- 구실—구실(任) : 稅金
- 구티다—굳히다 : 強要하다
- 두렵다—둥글다 : 穩全하다
- 뒤—뒤(後) : 北
- 즈러다—지치다 : 泄瀉하다

등의 예에서 보이는 漢字語의 出現은 전적으로 고유어와의 意味分化를 의도한 것이다. 예컨대 ‘구실’의 경우 현대어의 ‘任務’와 ‘稅金’은 類意語¹⁵⁾

11) Ullmann, *Semantics*(1962), p. 206.

12) 本稿 註 6 참조.

13) 金宗澤, 意味衝突현상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51 호(1971), 참조.

14) 拙稿, 借用語와 固有語의 調和—意味領域의 分化—, 「若泉 金敏洙교수 華甲紀念 國語學新研究」(탑출판사, 1986), pp. 563~575 참조.

15) ‘완전동의어’를 ‘同義語’라고 쓸 때 ‘부분동의어’의 뜻으로 ‘類義語·類意語·類似語’ 등이 쓰이기도 한다. 金敏洙, 국어의미론(일조각, 1981, pp. 62~64); 金完鎭, 국어 어휘 마멸의 연구, 「진단학보」 35집(1973, p. 39); 金宗澤, 上揭論文(1971) 등 참조.

도 아니지만 중세 국어에서 ‘임무+세금’의 未分化語 ‘구실’은 세금도 또한 ‘百姓된 임무’임을 생각하면 뜻있는 統合이라 할 것이다. 현대에도 사전에는 ‘구실’의 多義中 ‘租稅’란 뜻도 실려 있으나 사실상 死意味로 판단되어, ‘임무’란 뜻의 ‘구실’은 原義에서 축소되어 한자말 ‘稅金’과 分化된 것이다.

이 과정을 면밀히 추적하면, 문화의 초기 단계에는 어떤 언어 사회이거나 많은 어휘를 驅使하지 못하여 각 단어의 의미가 廣漠·模糊할 수밖에 없으나, 문화의 진전에 따라 사고 범위도 넓어져 어휘의 增大도 필요하고 한편으로는 같은 사물에 대하여도 더 細分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¹⁶⁾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많은 新語를 창조해 왔지만 그 증가의 속도가 需要를 따르지 못하며, 新造語란 언제나 限定的일 수밖에 없으므로 쉽게 필어 쓸 수 있는 외국어가 새로운 資源으로 활용되곤 하는 것이다.

(2) 意味의 擴大¹⁷⁾

것밧다 → 脫皮하다	꽃거집 → 妾·情婦
걸알외다 → 案内하다	나들 → 歲月
나맛천 → 國庫·公金	듣봄 → 見聞
몸닷기 → 修養	밑거집 → 本妻
밑글월 → 原文	밑나라 → 本國
밑얼굴 → 本質	밧싸 → 原產地

등에 나타나는 漢字語는 의미 영역의 확대¹⁸⁾를 피하여 借用語로 定着된 것이다. 곧 ‘것밧다 → 탈피하다’의 경우 ‘脫皮’의 原訓으로 보면 ‘것밧다’와 다를 것이 없으나, ‘것 > 걸(皮), 밧다 > 벗다(脫)’의 의미가 너무 具體的·直說的이어서 抽象的인 對象(reference)에의 適用이 어려워져 고유어의 쓰임이 줄어들고, 보다 包括的인 뜻의 漢字語가 대신하게 된 것이다.

16) 마치 수준이 낮을 때에는 ‘나무(木)’와 ‘쇠(鐵)’를 구별하면 못하나, 차차 ‘나무’와 ‘풀(草)’, ‘소나무·대나무·사과나무……’의 구분은 물론, 나무의 ‘뿌리·줄기·가지·잎·열매……’의 분간이 필요함을 느끼게 됨과 마찬가지로 이다.

17) 拙稿, 借用語에 의한 意味擴大, 月山任東權博士頌壽紀念論文集(集文堂, 1986), pp. 159~176 참조.

18) 흔히 ‘意味의 抽象化’란 용어를 쓰기도 한다.

3) 活用上的 要因

역사적으로 漢字와 漢文化가 대량 流入하자 이와 친숙해지고, 실제 언어의 驅使에 있어 고유어의 결합을 극복해 주는 편리함을 느끼게 되어 漢字語의 활용이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고유어 세력은 더욱 위축되어 漢字語가 定着된 경우로서, 다시 두 유형을 나누어 볼 수 있다.

(1) 漢字語의 造語力 活用

계엄모음 → 猜忌心	구의 → 官廳
그윽글윽 → 公文	물불취 → 水源
밭나라 → 外國	새집 → 草家

등의 漢字語化는 漢字가 지닌 生産的인 造語力에 緣由한 것으로 보인다.

어떤 말에서나 사용 빈도가 잦은 단어일수록 그 의미폭이 넓어지고 情緒的意味(emotional meaning)도 짙어져 生命力이 커지는 것임은 상식이다. 그런데 漢字가 한글에 비하여 造語力이 강하고 視覺的 효과도 크다는 많은 實證의 보고가 있거니와,¹⁹⁾ 漢字語가 지닌 이러한 生産的인 造語力로 인하여 固有語보다 漢字語의 活用頻度가 잦아지고 言衆과 친숙해지며 그것이 지닌 의미의 입성도 두터워져 현실적인 생명력이 강해진 것이다.

(2) 漢字語素에의 感染

글초(草) → 原稿	낮후(後) → 午後
늪몹병(病) → 風病	밥덤(店) → 食堂
본(本)골 → 本鄉	본사 → 本土
본돈 → 本錢	본집 → 本家
산(算)두다 → 計算하다	소(素)밥 → 素飯

등의 漢字語化는 原語에 漢字語素가 있어 그 語素의 영향으로 그 단어 전체가 후기에 漢字語로 바뀌게 된 것이라 보인다. 國語 어휘 중 派生語와 複合語에는 固有語만으로 이루어진 형태도 물론 있지만 ‘漢字語+固有語’의 複合形이 매우 많은데, 이때의 고유어 語素가 漢字語素의 感染을 입을 가

19) 南廣祐, 現代國語國字의 諸問題(—潮閣, 1973 改訂版), pp. 14~15, 182~190 참조.

능성이 많은 것이다. 이들의 漢字語化는 대체로 “고유어+고유어>한자어+고유어>漢字語”의 순서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는데,²⁰⁾ 現代語에도 이와 같은 ‘漢+固’의 복합형이 많으나²¹⁾ 앞으로 완전히 漢字語化할 公算이 크다.

4) 社會·心理的 要因

고유어가 약화되고 漢字語로 바뀌는 원인을 言語學的인 것에서 찾을 수 없고, 社會의 발전이나 완곡표현법 등 心理的動機에서 연유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경우인데, 여기서도 다시 몇 가지 유형을 나눌 수 있다.

(1) 文化的 優劣

異質的인 文化的의 접촉에서는 일반적으로 上位文化가 下位文化 쪽으로 전파되고, 借用語의 流入 역시 一律的인 것은 아니나 문화 수준이 높은 社會의 언어에서 낮은 언어를 향하여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²²⁾ 漢文化와 韓國文化의 교섭에서도 우리 쪽에서의 漢文化의 흡수가 활발하였음은 周知하는 바인데, 先進文化와의 접촉에 기인한 것으로 推定되는 漢字語 借用의 대표적인 모습은 數量語와 族戚稱號의 漢字語化 예이다.

두어열 → 二三十	설마은 → 三四十
열아홉 → 八九	온 → 百
즈른 → 千	

등 數量語의 변화나,

가식엄 → 丈母	넋할미 → 王姑母
아피누의 → 姑母	아수아자비 → 叔父
어피오라비 → 外三寸	한할마님 → 曾祖母

등 計寸呼稱의 漢字語化는 고급 문화의 傳來와 함께 명확한 細分과 高單位의 수량 표현이 필요해지고, 유교적 가족 제도의 확립과 수 개념의 인식에 따른 計寸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자, 당시 상황에서 쉽게 빌어 쓸 수 있던

20) 例: 밋싸(鬮朴 1517 이진) > 본싸 > (朴解 1677) > 본향(小解 1744), 밋집(月釋) > 본집(朴解) > 본家(現用) 등.

21) 그 예는 前掲 拙稿(1983) pp. 76~78 참조

22) Bloomfield, *Language*(1933), p. 461 참조.

漢字語로 그 용구를 충족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2) 婉曲表現

더러본아래 → 陰部

더러본이슬 → 月經

돌보기 → 用便

불거웃 → 陰毛

등의 漢字語化 語例는 점잖지 못한 용어를 의식적으로 꺼리어 보다 생소한 漢字語로 代置한 경우인데, 이러한 의식은 현대에도 살아 있어 ‘불거웃·궁둥이·젖가슴’ 대신에 ‘陰毛·恥部·臀部·乳房’ 등 한자말을 쓰려 하며 최근에 와서는 더 生硬한 ‘힙(hip)·바스트(bust)’ 등 西歐外國語가 자주 등장한다.

(3) 心理的動機

고유어가 소멸하고 漢字語로 바뀐 많은 語例²³⁾ 중 지금까지 論及된 어떤 原因으로도 그 변화 과정을 설명할 수 없는 예들은 言衆의 정신 상태에 그 책임을 돌릴 수밖에 없다. 이는 先進文物에 대한 憧憬과 外國語 選好意識 등으로 인한 것이어서, 소위 事大思想의 결과라 혹평되기도 하고 때로는 威勢動機(the prestige motive)로 인한 외국어 차용²⁴⁾이라 설명되기도 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語例는 너무 많고 論者에 따라 異見의 素地도 많은 것이어서 그 예를 摘示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 예들 거의 전부가 造語力이 강한 漢字의 有緣性에 基因한 必然的인 漢字語化라고 생각되기도 하지만, 조어력 활용과 위세동기에 의한 漢字語 借用과의 先後關係를 峻別함이 극히 어려운 상황인 이상 이러한 과정에 의한 借用語 代替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漢字語의 功過

三國 이래의 人名·地名·官職名 등 행정력에 의한 의도적인 改稱에서

23) 本稿 註 5) 참조.

24) Hockett, *A Course in Modern Linguistics*(1958), p. 404.

부터 우리말의 漢字語化 현상은 人力과 自然力의 共同作用——換言하면, 言語的要因과 非言語的要因의 結合·相乘作用——으로 끊임없이 진행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그 진행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漢字語의 增加와 그로 인한 固有語의 退化현상은 國語史의 측면에서 功績과 過誤가 함께 지적되지 않을 수 없다.

本稿에서 정리된 漢字語化 過程의 類型을 따라 살펴 보면, 먼저 漢字語로 바뀔으로써 多音節語인 우리말의 外形을 축소시켜 경제적인 언어 생활을 가능하게 한 것은 表音爲主인 우리말의 본질적 결함을 극복시킨 공로라 하겠다. 또한 형태상 不安한 고유어 대신에 安定性·生命力을 다시 부여했다고 판단되는 漢字語의 등장, 그리고 同音異義語間的 충돌로 생기는 언어 생활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해 준 일도 漢字語가 국어에 끼친 功으로 생각된다. 意味要因에 있어서도 未分化된 고유어의 개념 내용을 확연히 分化시킨 것이나, 限定的인 의미 영역을 확대시켜 抽象的·包括的인 適用을 가능하게 해 준 점 등은 문화 발전에 副應하는 言語의 발전으로 보아야 할 변화이다. 그리고 漢字語의 생산적인 造語力을 활용함으로써 폭넓은 造語源을 確保하게 된 점 역시 문화 발전에 기여한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漢字語의 増다가 남긴 弊害要因 또한 적지 않다. 위에서 社會·心理的 요인에 의한 漢字語化라고 지적된 예, 곧 先進 中國文化에 대한 憧憬과 銜學의 표현 의도에서 이루어진 漢字語化의 경우는 현대의 西歐 외국어에 대한 無批判的選好意識과 그 脈이 통하는 것으로, 國語 混濁의 主犯으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漢字語와 의미충돌의 결과, 고유어의 의미가 卑下된 경우도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그리고 漢字語의 造語力을 활용한다는 肯定的인 요소까지도 다른 면에서 보면 국어 발전의 沮害要因이 될 수 있으니, 그 조어력 또한 漢字語의 選好와 잦은 사용에 基因하는 것이요, 따라서 고유어 新造語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요컨대 국어에서 漢字語는 긍정적 가치와 否定的 폐해를 함께 끼친 것으로, 微視的 單面的 평가의 대상이 아니다.

4. 結 語

漢字語는 그 功過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相半됨에도 불구하고 더욱 增加하는 추세이며, 갈수록 찾아지는 서구 문화와의 접촉으로 인하여 이제 는 西歐語의 차용과 固有語·漢字語의 萎縮 현상이 활기를 띠 展望이므로, 漢字語를 대하는 우리의 意識을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들 漢字語를 서구로부터 온 외래어와 같은 관점의 차용어로 파악하면 한국어의 기반이 너무 빈약해지고, 근대 이후 시도되었던 것처럼 漢字語를 무조건 배척할 경우 固有語의 활용보다는 서구어의 사용이 더 활발해질 것임이 분명하다. 예컨대 “投手: 피치(pitcher), 捕手: 캐처(catcher), 調査: 리서치(research)” 등 漢字語와 西歐語의 同義衝突에 있어 이미 한자말이 국어의 자격으로 충돌함을 알 수 있고, 이 때 거의 위세동기에 의한 서구어 選好 쪽으로 기울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고유어와 가장 가까운 準國語의 자리에 한자어를 배치하고 서구어는 이보다 먼 차용어로 인식하되, 위의 漢字語化 과정을 前軸로 삼아 고유어의 위축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